

번호: OP-J-005				
제 목	치매 환자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Anaysis of the Socio-economic Costs of Patients with Dementia during the past 1 year			
저 자 및 소 속	강임옥1), 김정하1), 서수라1), 박종연1), 이용갑1), 최숙자1), 이상이2)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2)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Im-Ok Kang1), Kyung-Ha Kim1), Su-Ra Seo1), Chong-Yon Park1), Yong-Gab Lee1), Sook-Ja Choi1), Sang-Yi Lee2) 1) Health Insurance Research Center, NHIC, 2) Dep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Medical College, Cheju National Univ.			
분 야	의료관리 [의료보장/경제성평가]	발 표 자	강임옥 일반회원	발 표 형 식 구 연
<p><b>목적:</b>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 중인 하나인 치매 발병률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전에는 치매의 유병률과 사망률에 관한 연구는 있어 왔으나 치매 비용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알아봄으로써 치매환자 부양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p> <p><b>방법:</b> 본 연구는 지난 2004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 전국의 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다.</p> <p>① 공식적 의료비 산정을 위한 방법; 연구대상자는 2004년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 치매환자로 총 85,281명이었다. 분석내용은 치매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공단부담금, 법정본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공식적 의료비용이다.</p> <p>② 비공식적 의료비 및 간접비 산정을 위한 방법; 지난 한 해 동안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 치매환자 중 모집단의 분포를 고려하여 비례할당 기준에 따라 표본 609명을 추출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치매환자 및 주부양자, 주 의료비부담자의 소득을 포함한 일반적인 특성, 치매환자 및 주부양자의 간접비용, 치매환자의 일상생활 수행정도(ADL; Activity Daily of Living)와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 Instrument Activity Daily of Living), 주부양자의 부담감 정도 등이다.</p> <p><b>결과:</b> ① 2004년 한 해 동안 의료이용을 한 적이 있는 치매환자 85,281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33.9%, 여성이 66.1%로 여성의 비율이 2배 정도 높았다. 치매환자(85,281명)의 병원진료와 처치에 소요된 공식적 의료비(공단부담금, 법정본인부담금)는 1,584억원(1,310억원, 274억원)이고, 이를 1인당 평균비용으로 환산하면 1,858,112원이었다. ② 설문조사 치매환자(609명)의 1인당 비용은 다음과 같다. 공식적 의료비용은 1,044,513원이고, 비공식적 의료비용(요양시설 입소비, 보조물품 구입/대여비, 보완대체요법비)은 1,057,225원이며, 기타간접비용(간병비, 교통비)은 1,384,304원이었다. 한편 치매질환으로 인한 환자와 보호자의 이환소득손실금은 각각 290,313원과 2,781,617원이었다. ③ 결과적으로 치매환자 609명의 1인당 연간 총 사회경제적 비용은 6,129,612원인 것으로 산출되었다.</p> <p><b>결론:</b>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치매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비용(out-of-pocket)은 연간 1인당 3,227,225원 정도로 계산된다. 우리나라 치매환자는 33-56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들이 사용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치매환자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함으로써 노인의료보장정책의 하나인 치매환자 부양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노령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한 노인의료보장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기초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p>				